

碩士學位論文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의식

指導教授 梁 永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吳 禧 林

2006年 8月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의식

指導教授 梁永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吳 禧 林

吳禧林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6月 日

審 查 委 員 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國文抄錄>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의식

吳 禧 林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오만과 편견』에서 제인 오스틴은 여주인공 엘리자베스를 통하여 그녀의 여성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작품 속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오스틴의 여성적 자아의식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제인, 베넷부인, 리디아, 샬롯 등을 통해 당시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성숙된 자아를 지닌 엘리자베스를 통해 오스틴이 제시하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오만스럽고 편견에 빠진 다시와 엘리자베스의 상호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반자로서의 남녀관계와 그 관계에서 드러나는 오스틴의 여성의식을 연구해 보았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제인, 베넷부인, 리디아, 샬롯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성향을 지닌 여성들, 그렇지만 남성들에 비해 한없이 나약하며 남성들로 인해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여성들을 때로는 희극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냄으로써 당대의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던 편파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회 경험을 통해 성숙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엘리자베스를 등장시켜 기존의 여성의식에 반기를 들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다른 여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지성과 판단력을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소유하며, 정규 교육을 받은 콜린즈나 위컴같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오스틴은 작품에서 새로운 여성상인 엘리자베스를 등장시켜 종속적인 남녀관계가 아닌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남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의 오만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결점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오스틴은 이상적인 여성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성과 존재를 받아들일 줄 아는 남성도 필요하며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스틴은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적인 실상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과정에서 구속적인 사회 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해냄으로써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미래 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막중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 차

I.서론.....	1
II.관습과 제도상의 여성억압.....	6
III.새로운 여성상의 모색	29
IV.상호이해를 통한 양성관계.....	42
V.결론.....	56
Bibliography.....	61
Abstract.....	64



I. 서론

20세기 말엽부터 널리 유포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적 문학론은 각국의 문학사 서술에서 여권론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종전까지 일방적인 지배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식민자나 남성 집단의 횡포를 고발하고, 피식민자나 여성 등 피지배 집단의 삶의 기회 상실에 대해 뒤늦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성이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선구적인 사상가들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났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의가 현시대에 와서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이 태동하기 시작한 18,19세기부터 여성의 상황이나 교육문제, 재산 상속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시장경제로의 전이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사회적으로는 토지와 가문에 기반을 둔 귀족들을 대신하여 상공업과 교육에 기반을 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계급사회가 흔들리고 사회 계층의 이동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특히 거의 남성에 의해 독점되던 산업 전선에 여성 인력이 진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전보다 향상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순종을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전통적 인식,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 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시기

에 나타난 여성 작가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19세기 초 중산층 여성들의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서 일관되게 다루며 사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그려냈다. 이러한 오스틴의 관심은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세밀하게 보여 지며, 여성의 존재와 상황을 공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여성 문학 전통을 세우는데 기여했다. 그중에서도, 리비스(F. R. Leavis)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오스틴은 작품 속에서 인간 내면세계의 도덕적 문제를 제시하여 무수한 각도와 관점에서 따져보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¹⁾

그녀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1813)은 영국 소설사에서 가족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한 최초의 소설로서 당대 영국 사회의 풍속을 잘 그려낸 리얼리즘적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많은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여 보여주었고, 그 모든 작중인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유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격의 하나 하나는 그들이 마치 인간세계의 가장 독특한 개성을 지닌 존재인양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제인 오스틴은 당시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도입부의 장황하고 화려한 배경묘사와 사회적, 정치적 혁명의 열기를 의도적으로 지양하면서, 도덕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인물의 내적 심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서술 기교에서의 진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중산층 여성들의 사랑과 결혼 같이 제한된 소재를 다루며, 그녀는 사회 전반에 깊숙이 파고든 탐욕과 불안한 사회 변동으로 야기된 부도덕을 사회 ‘악’으로 판단함으로써 그 사회의 내면세계를 통찰하고자 하였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이런 사회적 ‘악’의 존재가 표면적으로는 ‘재산’과 ‘결혼’을 둘러싼 관심과 갈등에서 비롯

1) Frank. R. Leavis, *The Great Tra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48), p. 16.

되며, 내면적으로는 사회의 계급적 구조, 물질에 대한 탐욕, 불평등한 성(gender)의 역할로 인한 자아의 혼란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당시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보수가 지급되는 일자리,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등의 경제적 특혜를 받는데 반하여 여성은 경제적인 힘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 오스틴은 여성에게는 교육의 혜택, 직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여성들의 결혼이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인 수단이 되는 현실을 전제 조건으로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또한 여 주인공들에게 동일하게 설정된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와 여주인공이 속해 있는 소규모적인 지방 세계가 그들의 긍정적 판단과 독립심을 위협 하였으며 사회가 그런 주인공에게 제한된 범위의 성취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그녀의 소설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와 개인의 대립적 구조가 설정되어있는데, 불평등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문제 등을 작품 속에 설정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여성에게조차 결혼 이외의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오스틴의 묵시적인 비판과 더불어 진보적인 여성의식을 탁월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편 소설이 끝나는 지점까지 여성의 성장과정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른 여성들보다 탁월하지는 않지만, 오스틴의 여주인공들은, 지성과 도덕적 지표가 검증되는 시험대에 올라 실수를 저지른 후 일련의 성숙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 소설의 플롯이 결국엔 결혼을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존 가부장 사회에 대한 동화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결국 오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주인공의 도덕적 성장을 재확인 하는 것이고, 당대의 여성관에 반하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 억압적 사회 현실 속에서 오스틴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그 당시 여성이 당면해야만 했던 영국의 사회적 억압,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종속 상태를 합리화 하고 또 강력한 남성 중심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고찰해 볼 것이다. 특히 경제, 계급, 교육 등의 제도와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있던 여성 비하적인 관습과 함께 결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인물들의 약점과 우행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반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여성인 엘리자베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오스틴이 추구하는 여성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깨닫지 못한 정신적,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를 중심으로, 그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은 감성만을 지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성장 할 수 없다는 시대적 오류와, 남성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오스틴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자질인 지성, 분별력, 풍자적 시각은 전통적으로 규정지어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어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발전은 여성들만큼이나 남성들의 의식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오스틴은 편협한 여성관에서 벗어나 여성을 발전 가능성의 존재로 인정하고 귀 기울이게 되는 다아시를 등장시킴으로서 그녀가 의도하는 남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결함을 돌아보며 바람직한 정신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공존을 가능하

계 하는 단계를 살펴봄으로서 여성에 대한 당대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오스틴의 선구자적 시대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관습과 제도상의 여성억압

오스틴이 살았던 시대의 영국은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출현, 식민지 개척,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중세 봉건제 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된 격동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물질문명의 변화 양상으로 종래의 경제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사회가 도시 중심의 상공업 사회로 바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신흥 계급인 부르주아 계층이 출현함으로써 이전의 엄격한 계급제도가 무너지고 부(富)가 새로운 가치 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양한 변화는 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문학 등 각 부분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문제를 다루는 작가의 태도와 의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전환과 진보가 있었다. 산업혁명은 여성을 가정에서 산업 분야로 조금씩 진출케 함으로써 여성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이 시기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크게 진전되었다. 사회 전체를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었으며 여성 스스로의 자기인식 또한 진일보하였다.

이들의 이론적 기반은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여권의 옹호』(*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감성과 감각을 지닌 육체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발전시켰고, 미덕에 있어서 성별의 구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으면 계몽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펴나갔다.²⁾

2) Mary Wollstonecraft,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New York: Norton, 1972), p. 284.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이성적으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굴복해야 한다는 18세기적 사고에서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의식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 시기 동안 여성은 여전히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2등 시민에 불과 하였다. 이성적인 존재를 신과 남성으로 공식화하면서 여성의 존재는 인간 의외의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참정권을 포함한 정치와 여타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경제적·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 등에서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을 비하, 멸시하고 불신하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의 본질과 천성 또한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성 이데올로기의 압력 아래 남성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여성상이었다. 따라서 정신적인 면에서 독립을 추구하고 있던 여성은 기존의 제도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힘으로써 정신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여성의 삶에 대해서 헬레스타인(Erna Olafson Hellerstein)은 여성에게 당연시 요구되었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학, 법률, 의학, 종교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성의 삶은 가정, 남편,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다 ... 여성은 가정에서 전통을 보전하고, 거칠고 비인간적인 공적인 영역에서 돌아오는 남성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전문가이다. 이러한 “가정의 천사” 라는 꿈은 정신적으로 우월한 중·상류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안정감을 주었다.³⁾

3) Erna Olafson Hellerstein, *Victorian Women*,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81), p. 128.

작품 속에서 여성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을 쉽게 좋아하고 남의 결점은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착하고 좋게만 보는”(p.9) 제인(Jane)의 성향에서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정을 누르는 힘, 침착한 성격과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을 다 좋게 생각하려하는 경향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엘리자베스(Elizabeth)가 제인에게 진위가 확인된 다아시(Darcy)와 위컴(Wickham)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위컴의 악한 면모에 대해 이야기 하자 다아시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고 동정하면서도, 위컴을 비난하지 못하고, 샬롯(Charlotte)과 콜린즈(Collins)의 속물적인 결혼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만을 취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과 빙리(Bingley) 사이를 의도적으로 떼어놓으려는 빙리의 동생에 대해서도 자신이 겪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장만을 이해하는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제인은 스스로 자신이 남을 쉽게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며, 언제든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그녀의 성격은 여성들이 모두 천사처럼 순결하고 착하기를 기대하는 도덕적 관습에 얽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엘리자베스]는 그 편지 이야기를 했다. 내용 가운데 조지 위컴과 관련된 것은 모두 되풀이해서 말해 주었다. 이것이 가련한 제인한테 준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이런 정도의 사악함이란 한 사람 속에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통틀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 그녀니 말이다. 다시씨의 오명이 벗겨진 것이 그녀에게는 그나마 기쁘긴 했지만 이런 발견에 대한 위로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녀는 무슨 착오였음을 입증해 보려고, 한쪽을 개입시키지 않고 다른 한쪽을 해명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⁴⁾

이런 제인의 모습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모든 사람을 좋게만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충고한다. 사람됨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좋게만 보려는 그녀의 성격은 좋은 성품이라기보다 무지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주위사람들과 사회를 관찰하는 안목이 너무 단순하고 어리석은 탓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마음 속 깊이 빙리를 사모하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으로서 "품위 있는 숙녀"(Proper Lady)로서 자신의 평판을 지켜야 했으므로 어떤 열정적인 행동의 표현이 아닌 단지 미소와 눈빛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제인은 분명 빙리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품위 있는 숙녀로서 자신의 품위를 지켜야 했으므로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그런 그녀의 소극적인 행동이 그녀의 애정을 의심하는 다아시에게는 빙리를 그녀에게서 떼어놓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되었다.

“그분의 모습과 태도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쾌활하며, 매력적이었지만, 빙리를 특별히 더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저녁 자세히 관찰한 결과 저는 당신의 언니가 빙리가 보이는 관심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p. 279)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제인의 소극적인 행동이 다아시의 눈에는 사랑이 아니라 호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

4)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ed Donald J. Gray (New York: W.W. Norton, 1966), p. 313. 이후의 본문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본문에서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빙리를 부추겨 떠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소극적이고 착하기만한 제인의 태도에서 당시의 보편적 여성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동적이기만한 제인의 태도에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롯은 제인이 빙리와 결혼을 하려면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내보여야 한다며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재미난 일일 거야.”하고 샬롯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 여자가 그런 기술로 자기감정을 상대에게까지 숨기면, 상대를 붙잡을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과 매한가지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별 위안이 안 될걸. 대부분의 경우 애정이라는 감정에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허영심이 상당 부분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애정이 혼자 크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해. 모두들 시작은 별 부담 없이 하지. … 약간의 호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나 그 호감이 전혀 북돋워지지 않는데도 진정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거야. 열에 아홉은, 여자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이상을 보여주는 게 나아. 빙리가 네 언니를 좋아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계속 좋아하도록 언니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저 좋아하기만 하고 말지도 몰라.” (p. 34)

이렇듯 당시의 여성들은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남성을 유혹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면서도 깨끗한 평판을 지켜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오스틴은 제인을 통해서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후 제인은 아무 말 없이 네더필드(Netherfield)를 떠나 돌아올 예정이 없다는 빙리의 소식을 주위사람들로부터 들은 후에,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한 채, 그에 대한 애정 어린 감정을 접어두고 그를 단념하려고 한다.

“...그분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다야. 바랄 것도 겁낼 것도 없고 그를 욕할 일도 없어. 천만다행이야! 배신의 고통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목소리에 더 힘을 주며 그녀가 곧 덧붙였다. “이 점에 있어선 정말 다행이야. 내 쪽에서 착각한 것 이상은 아니라는 것 말이야. 그리고 나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줬다는 것도.” (p. 193)

그러나 그녀의 자신있던 말과는 달리 빙리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네더필드를 떠나 있는 수개월 동안 전과 같은 그녀만의 명랑한 모습을 잃어 갔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주위에서 모두 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중, 수개월이 지나, 빙리가 돌아와서 제인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그 동안 상처 받았던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망 없이 빙리를 받아들인다.

네더필드체류 기간 동안 빙리가 제인에게 보인 태도는 누가 봐도 명백히 제인을 좋아하는 모습이었으며 구혼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런 애기도 없이 네더필드를 떠나 있고, 떠나서도 제인에게 연락을 한번도 취하지 않았던 빙리의 행동은 쉽게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순결에서 오는 여성다움이 강조되던 당시의 여성에 대한 평판을 생각한다면 빙리의 이런 행동은 비난을 받아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비난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제인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지닌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이나 성숙된 자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런 수동적인 여성의 성향과 함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여성을 감성적인 면만 발달한 모습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리디아(Lydia)의 모습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다.

베넷가의 막내딸인 리디아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성품

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당시의 아가씨들처럼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상업적인 소설을 읽으며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 그녀의 관심사는 무도회, 연애, 사관이 전부였으며 남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사랑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해 버리는 천박한 습성이 있다.

리디아의 이러한 애정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한 그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서 잘 보여 진다. 그녀는 위컴의 잘 생긴 외모에만 빠져 가족들 몰래 결혼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간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런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뉘우침이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녀가 위컴과의 도주 후에 포스터 부인(Mrs. Foster)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걱정, 자신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계획보다는 단지 자신이 결혼한 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소풍을 가듯이 들떠 있는 모습이다.

...제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시면 언니 웃음을 터뜨릴걸요. 그리고 저도 언니가 내일 아침 제가 사라진 걸 알고 놀라실 생각을 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전 그레트나그린 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제가 누구랑 있는지 짐작 못하신다면, 언니를 바보 멍청이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고, 그이는 천사예요. 전 그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을 나가는 게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신다면, 제가 갔다고 롱본에 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직접 편지를 써 보내면 더욱 놀랄 테니까요. 리디아 위컴이라고 서명해서 말이에요. 너무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웃음이 나와서 편지를 못 쓰겠네요. (p. 401)

리디아의 이런 철없는 모습은 모든 가족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결혼 후 롱본(Longbourn)으로 위컴과 돌아왔을 때 잘 나타나는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제인에게 “이제 내가 언니 자리를 차지할 테니, 언닌 아랫자리로 내려가. 난 기혼 여성이니깐 말이야.”(I take your place now, and you must go lower, because I am a married woman)라고 말한다. 이런 모습에서 당시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는 결혼이며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이야말로 모든 권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인식을 가진 여성들 역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또한 언니들이 결혼한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며 아직 미혼인 언니들은 모두 남편감을 구하려 브라이튼(Brighton)에 가야한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결혼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엄마.” 모두 조찬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말했다.

“내 남편 어떻게 생각해? 매력 있는 남자 아냐? 언니들이 날 너무나 부러워할걸. 언니들도 내 반만큼이라도 운이 좋았으면 한다고요. 언니들도 모두 브라이튼에 가야해. 남편감 얻는 곳으론 최고지. 엄마, 왜 모두 안 갔는지 모르겠어. 정말 유감이지 뭐야.” (p. 434)

이처럼 리디아의 모습에서 여성을 지나치게 감수성을 가진 존재이며, 판단력이 부족하여 이성적인 사고는 할 수 없는 존재로 그 본질을 규정하려는 당대의 통념적인 사고방식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얼굴이 빨개지거나 눈물을 보이고 히스테리를 부리며 실신하는 등의 천박한 감수성을 내보이면서도 이를 통해 자신의 여자다움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여성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계몽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오스틴은 이렇게 리디아의 여성상을 어리석고 회극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당대의 여성비하

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제인같이 소신 없이 순종적이기만 하거나 리디아처럼 천박하게 감성적이기만 한 여성상을 그려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이 사회에서 그들 나름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했던 유일한 목표란, 자신의 신분을 향상 시켜줄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 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p. 9)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다” 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의 유명한 서두는 당대 사회의 본질적인 성격, 즉 돈의 지배로 특징 지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이 소설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나 애정이 단순한 애정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 돈과 계급적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 개입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스틴은 당시 물질을 중요한 결혼의 조건으로 여기는 사회 통념을 ‘진리’ (Truth) 라고 말함으로써, 물질을 중시한 결혼이 너무도 일반적으로 행해져 마치 진리인 것처럼 통용되는 고질적인 풍조에 대해 작품의 처음부터 풍자를 취하는 아이러니스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화자의 진술은 이 작품의 일관된 소재가 결혼에 대한 내용임을 예고해 주면서 작품 전체의 음조를 명확히 설정해 준다. 사회적 풍토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미혼 여성은 당연히 돈 많은

남성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표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독신 남성들은 대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만 독신 여성이나 미혼인 ‘딸들’은 하나같이 바로 그런 재산을 목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해야만 한다는 당시 사회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유산을 상속 받긴 하지만, 여성은 보잘 것 없는 금액을 지참금으로 상속받는 반면 남성은 생활터전 전체를 물려받았다. 빙리의 딸들이 통틀어 2만 파운드 상당을 물려받았다면, 그 집의 남자 형제들은 연간 4천 내지 5천 파운드를 받는다. 다시양의 재산은 통틀어 3만 파운드이지만 오빠인 다아시는 매년 만 파운드를 상속 받는다. 베넷부인은 모두 합쳐서 4천 파운드가 고작이지만 그녀의 남편은 해마다 2천 파운드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 이 소설의 처음 두 문장은 이와 같은 불균형을 미묘하고도 아이러니컬하게 그리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힘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환기시켜 준다.

베넷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모든 재산은 베넷씨가 죽고 나면 가장 가까운 남자 상속자인 콜린즈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는 당시 여성 상속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는 한정 상속이라는 제도로 인한 것이었는데, 한정 상속이란 아들이 없는 집안인 경우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양도해야 하는 제도로서, 부친이 사망한 이후엔 모녀는 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딸들만 여럿 있는 베넷부인이 오로지 재산 있는 남자들에게 딸들을 시집보내는데 집착하는 것은, 당시 여성이 경제적 독립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산 있는 남자를 골라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소설의 첫 장부터 이야기는 재산 있는 미혼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베넷부인의 수다로 시작된다. 오스틴은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풍자할 때에도 야

유나 모욕으로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코믹한 아이러니로서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다음의 베넷부인과 베넷씨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빙리 랍니다.”

“기혼이요, 미혼이요?”

“아유! 여보, 미혼 이에요. 아무렴요! 갑부 총각이라고요. 연 수입이 4, 5천은 된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아니 왜?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아이 참 한심한 양반이네!”하고 부인이 대꾸했다. “그 총각이 우리 애들 중 하나랑 결혼할 거라는 소리지요, 뭘.”

“그럴 속셈으로 이리 온다는 거요?”

“속셈이라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 그렇지만 뭐 우리 애들 누구하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 오는 즉시 방문하셔야 해요.” (p. 10)

당시 한정 상속 제도로 인해 재산의 귀속향방에 집착하는 베넷부인의 모습은 빙리를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사윗감으로 점찍은 모습에 이어 콜린즈에 대한 관심에서도 볼 수 있다.

콜린즈는 무식하고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 복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길러졌고, 우연한 기회에 캐서린부인(Lady Catherine)을 만나 헌스포드(Hunsford) 목사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부인의 후원에 힘입어 교구 목사직을 얻게 되어, 그녀에게 아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에게는 오만한 모습도 보여주는 속된 인물이다.

그는 딸들만 있는 베넷가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베넷가족에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다. 자신과 딸들의 사회에서의 위치를 지키고 싶은 베넷부인에게는 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콜린즈는 어느 날 베넷씨

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한정 상속자라는 점을 미안해하는 듯하지만, 실은 한정 상속으로 인한 이득을 은근히 좋아하며 큰 선심이나 베푸는 듯 그에 대한 대가로 베넷가의 딸 중 한명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허세를 부린다. 그는 당시의 남성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재산을 지켜줄 여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성직자로서 저는 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족 내에 평화의 은총을 수립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제 의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 선의의 제안이 매우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어르신께서도 제가 롱본 저택의 상속자라는 사정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네가 내민 올리브가지를 거부하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사랑스러운 따님들께 피해를 주는 위치가 된 점이 안타까울 뿐이오며,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꺼이 따님들께 보상할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 91)

이것은 콜린즈의 허세와 위선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지만, 한정 상속이라는 경제적 특혜가 남성들에게 결혼을 남녀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남성 중심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당대 남성들의 우월감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콜린즈의 편지를 받은 후 베넷부인은 그가 딸들 중 한명에게 청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계산 아래 그가 롱본을 방문했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그가 자신의 둘째딸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자 기뻐한다. 엘리자베스가 콜린즈의 청혼을 거절하면, 딸들의 생계가 보장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딸의 진정한 행복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콜린즈의 청혼을

거절한 엘리자베스를 설득시켜 그와 결혼 시키려 한다.

콜린즈 역시 결혼 전에 살펴야 할 기본적 조건인 상대방의 인격이나 애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의 첫 번째 시도의 대상은 아름다운 큰딸 제인이었으나, 베넷부인의 암시로 제인이 곧 빙리와 약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런 미련 없이 선택의 대상을 자연스럽게 엘리자베스로 옮긴 것이었다.

콜린즈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는 과정은 당대 여성의 여건에 관한 일반 남성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우월성과 합리적 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남성으로서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결국 베넷 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가 그의 청혼을 거절하자 베넷 부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엘리자베스를 비난한다.

“...아주 시치미를 딱 떼고, 우리 같은 건 어디 요크에라도 가 있다는 듯 눈에 보이지도 않지. 자기만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거 아냐. 그렇지만 한마디 일러주겠는데, 리지 아가씨. 이런 식으로 청혼이 들어오는 족족 거절한다면, 절대로 시집은 못 갈 줄 알아. 그러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 누가 너를 부양해 줄 건지 난 정말 모른다고. 난 널 계속 데리고 있을 능력이 없으니까. ...” (p. 163)

소설에서 끊임없이 결혼적령기에 있는 딸을 가진 부모로서 물질에 집착하는 베넷부인의 모습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는 재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당시의 만연해있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스틴은 베넷부인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며 그런 모습이 어리석다고 비웃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녀의 입장을 통해 한정 상속의 불합리함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물질만을 추구하는 베넷부인의 모습에 비난과 냉소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결혼에 대한

집착은 사회가 만들어 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중산층 여성들의 삶과 가치관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대해서 겐트(Dorothy V. Ghen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의 동기로서 작용하는 결혼에의 열망은 로렌스 소설의 성만큼이나 원시적이고 강렬하다. 이야기는 한 여인이 남자를 좇는 이야기이며, 남자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사냥감이다. 여자가 필사적으로 남자를 좇는 것은 상속재산이 없는 여자에게는 결혼이 경제적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넷가와 같은 가정의 여자들은 순전히 생존하기 위해서 생활할 돈이 있는 남자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⁵⁾

이처럼 기성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그릇된 가치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또한 물질추구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오스틴은 살롯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엘리자베스의 친한 친구이며 루카스경의 27세 된 딸로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살롯의 결혼은 당대 여성들이 처한 곤경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나이가 이미 노처녀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고, 자기 집안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살롯은 자신의 조건이 결혼 상대자로 선택되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대상이 콜린즈와 같이 희극적이며 분별력 없는 남성일지라도 “호감을 얻어 그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으려는 목적”을 갖고 그녀가 원하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그에게 상냥하게 대하여, 엘리자베스에게 거절당한 그가 자신에게 청혼하도록 행동에 옮긴 것이다.

5) Dorothy Van Ghent,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 p. 101.

콜린즈씨는 똑똑한 사람도, 함께 있기에 즐거운 사람도 분명 아니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지루했고, 그녀에 대한 그의 애정도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녀는 남편을 갖게 될 것이었다. 남자나 혼인 관계 그 자체를 중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은 언제나 그녀의 목표였다.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는 아가씨에겐 오직 결혼만이 명예로운 생활 대책이었고 결혼이 가져다줄 행복 여부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해도 결혼만이 가장 좋은 가난 예방책임이 분명했다. 이제 마침내 그 예방책을 손에 넣은 것이니 스물일곱의 나이에 한번도 예뻐본 적이 없는 여자로서는, 이번만큼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느꼈다. (p. 177)

샬롯은 상대가 누구든 안락한 가정을 갖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결혼의 가장 큰 조건으로 여겼다. 그녀가 선택한 결혼은 이상적이라 할 수 없지만, 당시의 사회적 흐름으로 볼 때 다분히 유행하는 유형의 결혼이었다. 그녀가 존경할 수 있는 남성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물질적인 안락함을 위해 샬롯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있고, 배우자가 될 콜린즈 보다 훨씬 분별력이 있으나 수동적인 존재로 남는 여성의 길을 선택한다.

사랑과 지성과 이해를 통한 결혼이 옳다고 생각하는 엘리자베스에게는 무엇보다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결혼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일일뿐이며, 그녀의 선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콜린즈의 어리석음과 샬롯의 지성은 서로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에 샬롯의 그릇된 선택은 이후 엘리자베스가 헨스포드 목사관을 찾아갔을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콜린즈 씨는 아내가 창피하게 여길 수 밖에 없는 말을 꽤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도 모르게 샬롯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한두 번이 샬롯이 살짝 얼굴을 붉히는 걸 발견했으나, 대개는 현명하게도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다. (p. 223)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헨스포드를 방문했을 때, 결혼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듯, 시종일관 쾌활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 하지만 샬롯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만족감 이외에 사랑과 이해와 지성의 결합에서 올 수 있는 정신적 만족감은 얻지 못한다. 그녀에게 남녀간 사랑은 결혼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이차적인 요소였기에 그녀는 결혼 후에 현명하지 못한 남편의 언행은 가능한 한 외면해 버리는 쪽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자기만의 방식, 즉 남편에게 정원 가꾸기를 권하고 좋은 방을 남편의 서재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남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결국,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을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기는 대신 결혼 자체가 주는 행복이란 ‘쾌적한 집’(Pleasant home)과 안주인으로서의 ‘가정적인 책임’(domestic responsibilities) 인 것이다.⁶⁾

숙녀들이 지내는 방은 뒤쪽에 있었다.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샬롯이 평소 때 사용하는 방으로 식당을 겸한 넓은 응접실을 택하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방은 크기도 더 넓고 전망도 더 좋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곧 그녀의 그런 결정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콜린즈씨의 방과 똑같이 쾌적한 방에서 지낸다면 콜린즈씨가 자기 방에서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보냈을건 보나 마나 뻥한 일 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배치는 샬롯의 현명함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p. 239)

6) Oliver Macdonagh, *Jane Austen: Real and Imagined Worlds* (New Havens & London: Yale UP, 1991), p. 33.

그녀는 콜린즈 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테브(Stuart M. Tave)는 샬롯의 그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억누르며, 귀를 막고 보지 않으며,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결국 그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이렇게 샬롯은 자신의 위치를 경제력이 없는 여성으로 판단하고 결혼을 스스로 선택 한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샬롯의 태도가 매우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므로 결혼을 순응하고 받아 들였다기 보다는, 제도나 규범으로만 인정한 것이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일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은 아니다.

오스틴은 이런 인물로 하여금 자기 모순적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지적으로 성숙하였다 하더라도 여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얽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물질적, 경제적인 안락함이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당시 대부분의 여성의 사고방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공고히 다지고 싶어도, 보수가 지불되는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 그 당시는 중상류 계급의 딸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길은 가정교사 외에는 거의 열려 있지 않던 시대였다. 중상류 계급 가정의 여성이 가정교사로서의 지위는 독특하고 애매했다. 재산이 별로 없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혼기를 놓치면 일반적으로 택하는 직업이 가정교사라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되었다. 여성 가정교사는 하녀가 아니면서 하녀와 같은 일을 하였고, 지위는 낮아도 자녀를 돌보는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맡았고, 아내는 아니었지만 주인의 자식을 돌보았

7) Stuart M. Tave, *Some Words of Jane Auste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 137.

다. 즉 여성 가정교사는 주부의 지위와 같은 정신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예측이 애매하게 복합되어 있었던 것이다.⁸⁾

이렇듯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관습과 제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성들은 경제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여주인공들에게 내뿜어진 현실이었으며 이런 강박 관념 속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억압받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베넷부인이나 샬롯 같이 결혼을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는 여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표면적으로 그러한 인물들을 풍자하고 있지만 이 소설 전체에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이 더 크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밀(John Stuart Mill)은 그의 저서 『여성의 예측』(*The Subjection of Women*)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자질이라고 규정한 것들에 의해 여성이 길들여지도록 하고 여성들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속박을 교육을 통해 정당화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자연적 원인들이 합세하여 여성들이 남성의 권력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여성의 주인은 단순한 복종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에 전력하였다. 모든 여성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의 이상적인 성격은 남성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 즉 자기의지나 자기 통제에 의한 자기 지배가 아니라, 복종과 타인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길들여진다. 현재의 모든 도덕규범은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 애정 이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여성의 의무이며 그것이 바로 여성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8) 김경진, 『제인 오스틴 생애와 작품세계』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pp. 43-44.

뛰어난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획득한 남성은 이것을 본능적 이기심에서 여성을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했다. 남성은 여성들에게 양순 과 복종, 그리고 여성 자신의 뜻을 남성의 수중에 맡기는 것이 성적 매력의 본질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 수단을 이용했다.” 9)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으로 열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혼을 위해 교양을 쌓는 정도에 머물렀던 여성들에게 허용된 교육의 기회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것이었다, 남성들이 캠브리지(Cambridge)나 옥스퍼드(Oxford)에서 법률, 논리학, 문학, 수사학, 신학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과는 달리, 여성들의 교육은 보통 가정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하층계급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중상류층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나 가정교사를 통하여 그림 그리기, 피아노 연주, 바느질, 춤, 노래 등을 위주로 배우거나, 여성으로써 남성의 눈에 아름답고 교양 있게 보이고 선택받기 위해 준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10)

실사 학교에 보내진다고 해도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수업 이상은 아니었는데 중상류층 여성에게 합당한 교양을 익히게 하는 기숙학교(boarding school) 정도를 제외하고 여성 교육기관은 거의 없었다.11) 이런 차이로 인해 청춘남녀사이에 타올랐던 정열이 시들어지면 여성은 곧 우매한 아내와 현명치 못한 어머니로 전락하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들 역시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이다. 단지 좋은 남편감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당시의 여성교육은 엘리자베스와 같이 총명한 여성들에게는 지

9) John Stuart Mill, 『여성의 예속』 (*The Subjection of Women*), 김예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pp. 62-63.

10) LeRoy W. Smith, *Jane Austen and the Drama of Woman* (London: Macmillan, 1983), p. 88.

11) Michael Irwin, *Women in Western Civilization*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81), p. 176.

적인 자극을 줄 수 없었을 것이며, 이성과 감성의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임으로써 여성들이 균형 잡힌 인격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또한, 오스틴이 살던 시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내면적 자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신념이 없었다. 여성의 사회적 이상과 목표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재산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 하는 것이었으므로, 학문적이고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 여성들의 교육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다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남성을 유혹하여 결혼하는 것만이 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결, 아름다움, 순종 등이 여성다움의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모든 여성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오만과 편견』에서 우리는 당시의 가부장제의 가치관에 맞게 가장 잘 교육받은 여성의 모습을 빙리 양에게서 볼 수 있다.

“물론, 그래야죠.” 그의 충실한 조수가 외쳤다. “진정으로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말을 들으려면 적어도 음악, 노래, 그림, 춤, 그리고 몇 가지 외국어를 완벽하게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외에도 걸음걸이의 맵시, 목소리의 높낮이, 말하는 태도와 표현에 품위랄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교양을 반밖에 못 갖춘 거죠.”(p. 58)

빙리 양이 여성으로써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말하는 음악, 노래, 그림 등은 주로 당대 여성들이 요구받았던 항목들이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갖춘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에 기분이 상한 빙리 양은 엘리자베스를 여성의 가치를 스스로 비하함으로써 남성의 시선을 끌려는 여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빙리 양이야말로 여성 스

스로 여성을 격하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스스로를 껴 맞추려고 하는 위험한 유혹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여기서 오스틴은 여성의 신비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빙리 양이 말하는 교육은 여성들의 지적 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일종의 기술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녀가 다아시, 엘리자베스, 헨스트 부부, 빙리와 함께 서재에 있을 때, 다아시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가 읽고 있는 책의 2권을 집어 들고 그와 이야기하려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빙리 양은 자기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다아시 씨와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진도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그의 책을 넘겨다보다가 했다. 하지만 그를 대화로 이끄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만 하면서 계속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오로지 다아시가 보는 책의 두 번째 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책을 즐겨보려는 시도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녀가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뭐니 뭐니 해도 독서만한 오락은 없다고요! 책만큼 싫증이 덜 나는 것도 없고! 이다음 내 집을 갖게 될 때 훌륭한 서재가 없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p. 80)

이런 그녀의 모습 속에는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독서나 다양한 교양 활동을 통해 지적, 정신적인 함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나 남성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오스틴은 다아시가 빙리 양에게 여성들은 그런 외적인 것 외에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보다 본질적인 것, 즉 정신을 계발해야 한다고 응수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그녀의 여성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런 교육이 남녀 관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스미스(smith)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적으로 시선을 끌도록 요구받아온 여성들은 남녀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지위를 교환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¹²⁾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오스틴이 비판하는 것은 여성들이 받는 그러한 교육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억압하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여성들의 이성과 감성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가로 막을 수밖에 없으며,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가 여성의 낮은 지위와 수동적 역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여성 교육의 한계점은 엘리자베스의 동생 메리(Mary)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의 결점이라 생각되는 외모를 보충하기 위해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는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가 받는 교육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사치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메리는 그 교육 안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는 그녀의 특성은 루카스경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뽐내기 위해 스스로 자청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그녀[엘리자베스]의 노래는 명창이란 말을 듣기는 어려웠지만 그만하면 훌륭했다. 한두 곡 부르고 나서, 한곡 더 해달라는 몇몇의 요청에 미처 답하기도 전에, 동생 메리가 얼른 나서서 피아노 자리를 이어받았다. 메리는 식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못생긴 편이라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 열심히 공부했고 언제나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메리는 재능도 소양도 없었다. 허영심이 있다 보니 열심히기는 했지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했다. 그런 태도로는 더 뛰어난 연주도 망칠 지경이었다.

(p. 38)

12) Smith, p. 24.

오스틴은 이런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교육이 여성 자신을 위한 자아계발의 교육이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만 여성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이 처한 사회 속에 순응하는 여성상들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인, 베넷부인, 리디아, 메리, 빙리양, 샬롯을 통해 당대의 일반적인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보여 지는 모습과 그들 자신의 여성 비하적 가치관과 사회제도를 살펴보았다.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짓고 억압하려는 성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여성을 이성적 사고력이 없고 감수성만 발달한 존재로 보는 시각, 그리고 자신의 독립적인 삶의 세계를 개척하지 않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오로지 좋은 조건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모습까지, 제인 오스틴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박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스틴은 이러한 여성들의 억압과 비참함을 역설하기 위해 주로 엘리자베스의 예리한 판단력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서, 그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제도 안에서 변화해나가며 자아를 형성해나가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보여 졌던 인물들과 다른 여주인공을 등장시킨 오스틴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새로운 여성상의 모색

유럽 페미니즘의 선구자는 울스틴크래프트로 볼 수 있는데, 오스틴 또한 그녀 못지않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여성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울스틴크래프트가 팜플렛 형식의 소책자들을 출판하여 직접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데 비하여 오스틴은 작품 속에서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여성상을 창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 중에서 엘리자베스 가장 진취적이고 발랄하고 날카로운 총명함을 지닌 여인으로 평가된다. 오스틴은 엘리자베스를 통해 사회에 대해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의 판단을 지닌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며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규정되어온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작품이 오스틴의 작품 중 에서 가장 인기를 얻었다고 여겨진다.

엘리자베스는 순종적이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부과된 당시의 사회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성과 이성, 분별력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기질을 지닌 총명하며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여성이다. 오스틴은 당시의 ‘여성적인’ 자질로 높이 꼽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나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이 아닌 “제인의 반도 예쁘지 않고 리디아의 반만큼도 짹짹하지 않은” 엘리자베스를 내세우며 “제일 영리한 아이”라고 아버지인 베넷씨를 통해 그녀를 칭찬한다.

소설 속에서 엘리자베스의 지성은 용기 있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녀는 언니 제인이 빙리 양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네더필드로 가던 중 소나기를 만나 감기로 앓아눕게 되자 언니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3마

일도 넘는 진흙투성이인 들판을 혼자 걸어가는 적극성을 보인다. 그 당시 상류 규범사회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것, 거기에다 치맛자락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걷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특히 결혼 적령기에 달한 여성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베넷부인은 엘리자베스가 걸어서 네더필드 까지 가겠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꾸짖으며 만류하지만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확고하다.

“넌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니.” 하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길이 온통 진흙투성이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거기 도착했을 땐 네 꼴이 말이 아닐 거다.”

“제인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고.”

“마차를 쓰게 해달라는 소리냐, 리지야?”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예요. 걷는 게 어때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리가 문제겠어요. 고작 3마일인데요, 뭐. 정찬 때까지는 돌아올게요.” (p. 48)

모어스(Ellen Mores)는 오스틴의 소설 내에서 구보의 의미는 여성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¹³⁾ 오스틴은 여기서 여성의 걷는 행위를 자립과 연결시키고 언니를 위한 엘리자베스의 행동을 건전한 것으로 표현해 낸다. 당시 사회에서는 엘리자베스가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지성, 정직성, 침착성, 그리고 뛰어난 언어 구사력 등은 남성적인 특징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여성에게 이러한 특성은 결혼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그녀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서슴없이 발언하고 실행하는 것은 남성적인 행위라고 경계하였으며, 이 세상에 분별 있는 남성들만 있다면 남성적인 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평생 처녀로 지내게 되리라는 악의에 찬 주장을 하였

13) Ellen Mores, *Literary Women* (New York: Anchor, 1977), p. 157.

다.¹⁴⁾ 이렇게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가 네더필드에 도착했을 때, 빙리양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비난한다.

“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아니 4마일, 아니 5마일, 아니 도대체 몇 마일이든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오다니, 그것도 발목까지 진흙탕에 빠져가면서, 게다가 혼자서, 진짜로 혼자서 말이야! 도대체 뭘 어찌자는 거야? 독립심이라도 그런 독립심은 정말 끔찍한 오만이야, 촌뜨기라 격식을 무시한다 해도 정말 너무했죠.” (p.25)

사실 예절이 법보다 중요했던 시대에 여성으로서 엘리자베스의 이런 모습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회적 관습에 개의치 않고 주체적으로 밀고 나가는 독립정신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자베스가 여성에게 부여되는 경제적 약점과 열등한 위치 때문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이 인습적인 여성다운 행동에 대한 거부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부보에르 (Simone de Beauvoire)는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강력한 자아와 그 자아를 위협하는 세계와의 갈등의 결과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¹⁵⁾

엘리자베스는 무엇보다도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그녀는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들을 속박하는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다른 보통 여성들과는 달리 날카롭게 인식한다. 보편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엘리자베스의 행동은 콜린즈의 청혼을

14) Jean Jacques Rousseau, *Emile*, trans. Barbara Foxley (London: Dent and Sons, 1957), p. 372.

15) Simone de Beauvoire, *The Second Sex*, trans. and ed. H.M. Parshley (New York: Bantam Books, 1970), p. 253.

받은 후 좋아하기는커녕 매우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단지 재정적인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다며 그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콜린즈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지위와 안정을 가질 수 있지만 남편으로서 존경할 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와의 결혼은 그녀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여성의 거절은 항상 거절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콜린즈는 엘리자베스의 주관에 따른 거절을, 남성에게는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교로밖에 해석해버린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이제부터 저에 대해서 당신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고상한 여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실을 말하는 이성적인 존재로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답변하는데, 여기에서 그녀가 말하는 이성이란 관습 때문에 뛰어넘기 훨씬 힘든 장벽인, 남성의 태도와 맞서 여성이 주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말을 통해 오스틴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것이라 여겨왔던 특성을 여성도 소유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남성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콜린즈의 청혼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거절은 결혼이란 사회 제도를 통하여 남성이 여성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사회적 보장에 대한 거절이라 보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쉽게 굴복하는 당대 사람들의 비굴한 속성을 풍자해주기도 한다.

엘리자베스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속물적인 면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관찰하려 하는 노력과 당당함은 캐서린 부인과의 만남에서 잘 드러난다.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 캐서린 부인은 상류층 특유의 속물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인물로서 콜린즈의 후견인이며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부인은 지주라는 신분과 재력을 거의 모든 사람

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제압한다.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딸이 하고 싶은 만큼 카드놀이를 하고 나자 테이블이 모두 치워졌고, 영부인이 콜린즈 부인에게 마차를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져서, 즉시 마차를 대령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벽난로 주변에 둘러서서 캐서린 영부인이 다음 날 날씨를 예견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그들이 이 같은 교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마차가 도착해 그들을 불렀다. 콜린즈 씨가 계속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윌리엄 경이 콜린즈 씨의 인사만큼 여러 차례 절을 올리는 가운데 그들은 출발했다. (p. 238)

콜린즈 부부가 거주하는 목사관을 방문한 엘리자베스가 캐서린 부인의 초청을 받아 일행과 함께 로징스(Rosings) 영지를 찾아갔을 때 캐서린 부인은 매우 오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의 외관적인 당당함이 남다른 재능과 놀랄 만한 덕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돈과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압도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당당하게 맞선다.

“세상에.” 영부인이 말했다.

“아가씨는 젊은 사람이 꽤 당돌하게 자기주장을 하는군. 도대체 나이가 몇인가?”

“다 자란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설마 제가 그걸 고백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캐서린 영부인은 바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그토록 오만 불손한 그녀의 태도를 감히 농담으로 받아넘긴 첫 번째 인물이 아닐까 짐작했다. (p. 237)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캐서린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누리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명예심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음을 암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캐서린 부인의 명예심이 실속 없는 빈껍데기 일뿐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캐서린 부인의 속물적인 명예욕에서 비롯되는 그릇된 결혼에 대한 통념인, 혈통과 신분을 중시한 결혼관이 엘리자베스에 의해 조롱당하게 되는 것은, 그녀가 조카인 다아시와 엘리자베스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의 결혼을 제지시키기 위해 예고 없이 롱본을 찾았을 때이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신분과 혈통을 내세우면서 다아시는 같은 귀족 출신인 그녀의 딸과 결혼해야 마땅하며, 그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단념하라고 그녀의 속물적인 명예욕을 그대로 드러내며 말한다.

“내가 말할 때는 끼어들지 마. 잠자코 듣고 있으란 말이야. 내 딸하고 조카는 서로 천생연분이야. 두 사람 다 외가 쪽은 똑같은 귀족 가문 출신이고, 친가 쪽은 작위는 없지만 점잖고 명예로우며 유서 깊은 가문이지. 양가 모두 재산도 굉장하지. 각자의 집안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서로 맺어져야 한다는데, 무엇이 둘을 갈라놓겠다는 건가? 가문도 친척도 재산도 변변찮은 젊은 여자 하나가 건방지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걸 그냥 두고 봐야겠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안되고 말고. 아가씨한테 무엇이 득인지 지각이라도 있다면, 아가씨가 자라온 테두리를 벗어나길 원치 않을 텐데.” (p, 488)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망각하지 말라고 심한 모욕을 주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다아시를 단념시키려 한다. 이것은 캐서린 부인 한사람만의 결혼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신분과 혈통이 중요시되던 계급사회의 통념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도 마찬가지로 신사의 딸이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맞서며

그릇된 결혼관과 상류층의 허세와 권위에 일침을 가한다.

오스틴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조건은 신분과 재력의 정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성품과 교양의 동등함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을 중시한 그릇된 결혼에 대한 통념을 나타내기 위해 신분상이나 재력에 있어 캐서린 부인 에게는 훨씬 못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녀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영리함을 소유한 엘리자베스를 내세워 당시의 계급 사회에 대항하고 있다. 구네르틴(Yasmine Gooneratne)은 오스틴이 작품을 통해 부정적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안목으로, 잘못 받아들여진 사회 관념의 교정을 부르짖으면서도 강하게 요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⁶⁾

엘리자베스를 성숙된 자아를 지닌 새로운 여성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녀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엘리자베스는 대학 교육까지 받은 콜린스나 위컴같은 남성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아버지인 베넷씨에 비해 훨씬 지적이고 분별력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콜린스씨는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교육이나 교제를 통해 타고난 결점을 개선할 기회도 별로 없었다. 무식한 구두쇠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자란 탓이기도 하고, 비록 대학을 다니기는 했지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을 땀을 뿐, 도움이 될 사람을 사귄 위인이 못 됐던 탓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키울 때 무조건 복종만을 요구 했는데, 이것이 그를 아주 비굴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비굴한 성격은 이제 머리는 나쁜데 사람들과 별 교제마저 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자만심과 예기치 않게 일찍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부심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상쇄되었다. 그는 헨스퍼드의 목사 자리가 비었을 때 때마침 운 좋게도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게 추천되었다. 그 바람에

16) Yasmine Gooneratne, *Jane Aust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 240.

그는 영부인의 높은 지위에 대한 존경심과 후원자인 그녀에 대한 숭배에, 자만심, 성직자로서의 권위 의식, 그리고 교구 목사로서의 권리 등이 마구 뒤섞여 오만과 아첨, 잘난 체와 비굴함의 혼합물이 되었다. (p. 101)

이러한 성격에 걸맞게 콜린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후원자인 캐서린 부인에 대한 복종의 차원에서 아무하고나 결혼하려고 한다. 이것은 캐서린 부인에게 뿐만 아니라, 상류층에 대한 콜린즈의 아부근성 내지는 비굴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원래 그의 비굴성은 아버지에 의해 어릴 때부터 길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런 면이 성격상의 결함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엘리자베스의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례적인 행동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여성을 동등한 상대자로 취급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인 위컴은 엘리자베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다아시와의 관계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그의 인격을 끌어내린다. 또한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서 도피하기 위해 무조건 리디아를 데리고 도망을 간다. 다시의 도움으로 리디아와 결혼을 하고 룽본으로 돌아온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쾌한 태도를 취하는 비도덕적인 면을 드러낼 뿐이다.

위컴도 그녀만큼이나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태도는 늘 아주 기분 좋은 것이어서, 만일 그의 성격과 결혼이 도리에 맞는 것이기만 했다면, 그가 친척답게 굴 때의 미소와 스스럼 없는 언변이 그들 모두를 즐겁게 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사람이 이렇게 까지 뻔뻔스러울 줄은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후안무치한 인간의 후안무치에는 앞으로 한도를

두지 앓기로 내심 결심하였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제인도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정작 남들을 당혹스럽게 한 장본인들의 뺨에서는 색채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p. 432)

한편 오스틴은 베넷 씨를 통해 당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가부장제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오스틴의 작품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가장의 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가장다운 가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편이 옳다. 『오만과 편견』에서 오스틴은 어떻게 본다면 리디아가 위컴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베넷 씨를 통해 무능력하며 냉소적 방관자인 가장의 모습을 그린다.

그는 한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젊음과 아름다움이 주는 일시적 매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맞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젊음과 미는 일시적이고 그 외에 더 장점이 없는 아내에게 베넷 씨는 일찍부터 싫증이 났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고 아름다운 데다가 마음씨도 착해 보이는- 젊고 아름다우면 마음씨도 착해 보이게 마련이니-한 여인에게 반해 결혼하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머리도 나쁘고 마음도 꼭 막혀 있는지라 그녀에 대한 애정은 결혼 초기에 진작 끝나버렸다. 존경, 존중, 신뢰는 영원히 사라졌고, 가정의 행복에 대한 그의 생각들도 모두 깨져버렸다. (p. 329)

아내에 대한 존경과 신뢰감이 사라진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참다운 사랑이나 이에 따른 상호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이다.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기에 그는 자신의 부인이 23년을 겪어보고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냉소적인 기질과 변덕, 재기를 지닌 채 그저 방관적인 태도로 삶을 영위할 뿐이다. 오로지 서재에

서 책 읽는 것만을 위안으로 삼고, 자기의 판단에 대한 우행을 질책하는 한편 방편으로 자기의 주변 인물이나 아내, 딸까지도 자상한 관심으로 보살피지 않고, 그들의 약점이나 어리석음을 발견하면 냉소적인 비판자의 역할을 한다. 그에게 있어서 서재는 같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로 이루어진 그만의 성이었으며, 그곳이 같은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지내지만 현실로부터 그리고 자신보다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어리석은 가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나 마찬가지로있던 것이다.

언뜻 보면 그는 매우 자애로운 가장으로 보인다. 그가 뛰어난 기지와 재치로 베넷 부인을 조롱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일은 거의 그녀의 뜻에 따르며, 딸들에겐 관대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신뢰와 사랑은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어울리는 사랑과 화합의 공간으로 꾸리지 못했다. 그 자신이 아내를 딸들 앞에서 공공연히 조롱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제인과 엘리자베스를 제외한 딸들에게는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나누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장으로서 그의 무기력함을 여지없이 노출시키는 사건은 리디아의 도피 행각이라 할 수 있다. 메리튼에 주둔하던 연대가 브라이튼으로 떠나자 리디아는 슬픔에 잠기는데, 포스터 부인에게서 브라이튼으로 같이 가자는 초청을 받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리디아의 행실을 염려해 그녀를 보내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충고하는데, 이때 베넷 씨는 딸을 걱정하며 아끼는 모습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준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나 제인은 어디 가나 대접받고 귀염받을 거다. 너희들이야 어리석은 동생 두엇, 아니 세명이겠다, 있다고 해서 크게 손해를 입을 것도 없을 거야. 리디아가 브라이튼으로 가지 않으면, 롱본에 평화란 없을 게다. 그러니 보내주자. " (p. 323)

마침내 베넷 씨의 무사 안일주의는 리디아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가 가족의 어리석음을 항상 비웃어 넘기고 지나치게 방관적인 태도로 삶을 회피한 것이 리디아에게 치명적 자기 방임을 가져다주고 그녀의 인생을 망쳐 놓아 영국 문학에서 가장 불유쾌한 결혼 중에 하나가 되게 한다.¹⁷⁾

리디아가 위컴과 도주한 일은 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그 일을 빨리 매듭지으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모든 일을 처남인 가드너 씨에게 맡겨 둔다. 마침내 가드너 씨가 리디아의 결혼을 성사시킨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그들은 결혼해야 해. 그 밖에 대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만 그 뉘우침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엘리자베스가 리디아사건을 해결한 숨은 선행자가 다아시임을 털어놓자 그는 재치 있고 기지 있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무능한 그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한 저녁이로구나! 그래, 다아시가 모든 걸 했다는 거지. 결혼을 성사시키고, 돈을 주고, 그 친구의 빛을 가려주고, 장교 자리를 얻어주고! 그렇다면 더더욱 좋지. 돈을 아끼고 애를 써야 하는 일에서 나를 구해 줄 것이니 말이다. 네 외삼촌이 한 일이었다면, 갚아야 하고 또 갚았을 것 이다만,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젊은이

17) John Halperine, *The Life of Jane Austen*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3), p. 89.

들이 자기 멋대로 한 일이라니, 내일 그 사람한테 돈을 갚겠다고 제안해 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해서 한일이라느니 하면서 난리를 치겠지. 그걸로 그 일은 마무리가 되는 거야." (p. 518)

자신의 철없는 딸의 일을 앞장서서 도와준 다아시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가드너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면 다시 돌려줘야 했을 텐데 다시가 자신의 딸을 사랑해서 자처해 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며 리디아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의 결혼 문제까지 처리해 버린다. 무거운 현실적인 부담도 해결하고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가 부자이면서 신사인 남편을 얻게 된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축하한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실수로 한 결혼임에도 좀더 나아지기 위해 가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둔한 딸들과 아내를 조롱하고 경멸하며, 그의 신중치 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은폐하려는 듯이 아이러니와 독설, 풍자로 무장한 방관자의 모습으로 남는다.¹⁸⁾ 이렇게 나약하고 온당치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자신은 아버지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버지의 행동이 지아비로서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애정으로 대해 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했고, 결혼의 의무와 예절이 일상적으로 깨지고 있는 현실을 아예 생각에서 지워 없애려고

18) Marvin Mudrick, *Irony as Discrimination: Pride and Prejud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 88.

했다. 아내가 자식들에게 경멸을 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처사가 심히 못마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 자식들에게 끼치는 손해를 지금처럼 강렬하게 느낀 적도 없었고, 재능이 방향을 잘못 잡은 데에서 생기는 해악을 이토록 속속들이 느낀 적도 없었다. 재능을 올바르게 쓰기만 했더라면 아내의 마음을 넓혀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딸들만큼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키워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p. 330)

이와 같이 오스틴은 아이러닉하게 사회에 무관심하거나 그 사회에서 세력을 잃어가는 인물, 이제 더 이상 그 사회가 기대할 수 없는 인물들을 가부장 사회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효과를 낸다. 즉 그녀는 한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힘의 균형이 깨어진 부부 관계가 이처럼 무책임하고 때로는 방관자적인 가장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울러 여성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조화롭고 이상적인 남녀의 역할을 기대하는 여성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오스틴은 콜린즈와 위컴, 베넷씨를 엘리자베스의 대응적인 인물로 설정해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본질적으로 이성적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가치관에 과감히 도전한다. 엘리자베스는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 속에서 물질적 추구라는 건전하지 못한 가치관에 지배받는 결혼관과 여성관에 반기를 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가하면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모순점도 자아 인식의 과정을 통해 훌륭히 극복해 나간다. 오스틴이 총애하는 인물이자 그녀의 자화상이기도 한 엘리자베스는 뚜렷한 가치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갖춘 새로운 여성상으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IV. 상호 이해를 통한 양성관계

오스틴은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변화해가는 동반자적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만큼, 그들을 올바르게 바라 볼 수 있는 남성들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있는 여성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남성은 가부장제 하에 왜곡된 남녀의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콜린즈는 다아시와는 달리 이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는 대화가 단절된 일방적 통보만 할 뿐이다. 콜린즈는 선천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굴함의 혼합체이다. 위컴의 경우를 볼 때도, 여성들에게 친절하고 잘 생긴 외모를 지닌 그이지만 다시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관한 그의 거짓말은 엘리자베스가 스스로 원하는 의미만을 거기서 끌어내게 하도록 교묘하게 조작한다. 이런 위컴의 모습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 지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혀 도덕적으로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을 단지 자신의 야망과 욕망,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와의 관계에서 그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다아시이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수직 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로서 나타나는데, 이들의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 정확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적, 도덕적 성장 과정을 상호 작용을 통해 거쳤기 때문이다.

두 인물은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성격연구가라 칭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지적 판단을 과신하는 편견을 지니고 있고, 다아시는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계

층의식으로 인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내적 가치를 계급과 신분이라는 외형적 가치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19) 이는 후에 다아시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맞게 오만함과 우월감을 가져도 무방하도록 그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으며, 자라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오만함을 지적해 주지 않았다. 그가 성장한 배경과 교육 내용은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의 관심을 쏟기 전까지는 그에게 전혀 방해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를 만나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위엄은 ‘오만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의 계층의식은 사랑쟁취의 방해물이 된다. 따라서 다아시가 엘리자베스를 만나면서 갖게 되는 사랑의 개인적 감정과, 그 사랑을 얻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아시가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될 사회의 장벽은 엘리자베스의 편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편견으로 인하여 다아시가 타파하는 인습의 벽은 엘리자베스의 결혼이 살맞이 선택한 현실위주의 결혼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첫 만남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아시가 메리트 무도회에서 ‘참을만하다’는 평을 덧붙여, 그녀의 외모가 자신의 시선을 끌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면서 엘리자베스와 춤을 추라는 빙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의 이러한 오만하고 도도한 언행으로 인해 그는 베넷 가 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에게 까지도 거만하고 불유쾌한 인물로 비쳐진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불유쾌한 면만을 주시하고 장점을 보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상대방의 외모를 평하는 것은 다아의 오만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그는 잘 모르는 파트너와 춤을 추는

19) Marilyn Bulter, *Jane Austen and the War of Ideas* (Oxford: Clarendon, 1987), p. 206.

것을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로 여겼기에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그녀가 예쁜 외모를 가졌다고 처음에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만 그녀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자주 보게 되면서 그녀의 검은 눈의 아름다운 표정이 그녀의 외모에 지성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자신이 보아온 여성들과는 다른 그녀의 자연스럽게 명량한 성격에 빠져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아시는 처음에는 그녀가 예쁘다고 인정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무도회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대단한 미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녀를 만나보았을 때도 흠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목구비에 특별히 뛰어난 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마자, 그는 그녀의 검은 눈에 어린 아름다운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이 남달리 지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p. 36)



그는 그녀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예의범절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류사회의 예의범절보다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의범절보다는 그녀의 천부적으로 명량한 기질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

다아시가 변화될 인물임을 암시하는 첫 단계로, 그는 분명 그녀가 좋은 가문의 여성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통해 무도회의 따분함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가 엘리자베스를 주의 깊은 관심으로 관찰하고 있을지라도, 다아시는 여전히 오만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차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가씨들 삼촌이 메리트에서 변호사로 있다는 얘길 들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삼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치프사이

드 근처 어디에 살고 있다지.” “정말 끝내 주네.” 그녀의 동생이 덧붙였고, 자매는 신나게 한바탕 웃어 짓혔다. “만일 그 아가씨들에게 치프사이드를 몽땅 채울 만큼 많은 삼촌이 있다 하더라도,” 빙리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그 아가씨들의 매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웬만한 신분의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지.” 다아시가 대답했다. (p. 54)

오스틴이 살던 당시는 인간의 노동의 대가가 말의 노동력보다 더 싼 시대였다. 특히 자신의 생계를 위한 육체적 노동은 귀족 계급의 신사에게 있어 제외되었던 영역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외삼촌들이 당시의 상업 지구인 치프사이드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아시와 빙리 남매들은 신분적 거리감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빙리 자매와 다아시는 자신들보다 한 단계 낮은 베넷 집안사람들과는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서로 동조한다. 그 당시 사회의 결혼은 개개인의 수평적인 결합이 아니라 계층과 가문간의 수직이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다아시가 그 동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엘리자베스에 관한 관심이 더욱 좋은 감정으로 발전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에는 상냥함과 장난기가 함께 섞여 있어서, 누구에게든 진짜로 모욕을 주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다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녀에게만큼 매혹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집안이 그렇게 열등하지만 았았더라면 자신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p. 76)

그는 당대 사회에서 인간을 판단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엘리자베스에게 적용했던 것이다. 한편 이런 다아시와 달리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자신에 대해 무도회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이미 의식 속에

고정적으로 자리 잡아 그를 성격적인 결함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에 대해 가진 첫인상은 자신에 대한 그의 무례한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의 냉철함과 무관심한 언행은 엘리자베스의 생각을 더욱 굳히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다아시에 대한 그녀의 반감은 그가 제인과 빙리 사이를 가로 막고 있다는 추측으로 더욱 악화되어 다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감정이 편견에서 증오로 변하게 되는 한편, 다아시는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엘리자베스를 점점 찬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서로에 대한 이런 상반된 감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 다아시는 흥분하여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말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높은 신분과 그녀의 낮은 신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청혼을 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계급적 오만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얼굴을 붉혔고, 귀를 의심했으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을 충분한 격려로 간주하고, 즉시 자신이 그녀에 대해 현재 품고 있으며 오래 동안 품어왔던 감정을 모두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훌륭했다. 그러나 그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 외에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야 했다. 애정에 대해서보다도 자존심에 대해 말할 때 더 열변이었다. 그녀의 신분이 열등하다는 것, 그런 결혼은 집안에 수치라는 것, 그녀의 집안을 생각하면 이성언제나 감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등을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했다.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는 그 신분 때문인 듯했지만, 그의 청혼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p. 268)

다아시의 청혼에는 자신의 신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대를 자신

이 선택했다는 심리적인 승리감이 내포되어 있다. 다아시는 콜린즈의 청혼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엘리자베스에게 특권을 부여해 준다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시종일관 의기양양하다. 다아시는 여전히 신분적 권위를 과시하고 있으므로 낮은 신분의 엘리자베스 가족들과 쉽게 융화될 수 없으며, 그녀의 가족들은 “스스로의 애정을 인정하기를 오랫동안 방해”(p.162) 해온 장애물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녀의 가족들이 엘리자베스 자신에게도 역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청혼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만족하며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아시의 말에 분노하며 다아시의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매너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고백 방법이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며 신사답지 않다고 지적한다. 엘리자베스는 돈과 신분상승보다는 예의와 사랑을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다아시에게는 ‘신사’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신사다운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엘리자베스가 말한 ‘신사’는 도덕적 판단과 매너를 갖춘 신사이기에, 오만함이 지배적인 다아시의 언행은 오히려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그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다아시의 표정에는 그녀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상의 확신이 나타나 있었다. 이는 그의 지위로 보다 재산으로 보다 재산이 많지 않은 중간 계급의 딸인 엘리자베스에게는 과분한 혼처였고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의 심리적 확신은 “상당한 재산을 지닌 독신 남성은 아내를 필요로 한 것이 보편적 진리”인 사회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청혼을 하는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보이는 행동이 아닌 자존심이나 신분 등을 내세우는 오만함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

를 꼬집어 지적하며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이라 해도 좋을 것 같군요. 저는 이미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이 거만하고 잘난 체하며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남의 감정은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일들이 쌓이면서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토대 위에 단단한 혐오감이 자리 잡았다고 할까요. 그랬기 때문에 당신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p. 274)

엘리자베스의 거절은 그녀가 사회적 신분에 구애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모든 여성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다아시의 청혼을 그녀가 물리치는 것은 그녀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다아시에 대한 편견과 갈등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청혼을 거절하는 주된 이유는 다아시에게 굳어진 첫인상 이외에 다음 세가지로 집약된다.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의 가족을 무시했다는 것,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신사라고 여겨지는 위컴에게 남겨진 유산과 성직록을 다아시가 제멋대로 사용하여 그의 독립심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제인과 빙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가 빙리와 제인 사이에 물리적 힘을 가하여 그들의 결혼을 방해한 이유는 신분의 차이이며 그 이유는 자신의 경우에도 최소한 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도 자신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진심으로 다아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강한 의문을 품는다. 동시에 엘리자베스는 이미 다아시에게 굳어진 편견들 때문에 그를 더욱 몰인정한 이기주의자로 생각한다.

한편 대지주이면서 귀족 이었고 자신의 가문 혈족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며 자라왔던 환경 탓에 오만하면서 자만했던 다아시에게 엘리자베스의 이러한 청혼 거절은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제까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전혀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데다가 자신의 청혼을 즉석에서 거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계급과 부를 이용하는 위선에 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를 통해 계급적 우월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부가 결코 한 사람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얻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의 정신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엘리자베스에게 해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는 콜린즈나 위컴과 같은 인물들과는 달리 비굴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다른 남성들 같으면 그녀의 말을 주제 넘는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등을 돌려버릴 뿐이었겠지만, 그는 엘리자베스의 비난에 대해 생각하고, 그녀가 오해한 사건들의 자세한 내막을 알리는 편지를 그녀에게 전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장한 다아시의 면모는, 새로운 여성상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춘 새로운 남성상이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우위를 지닌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적 결함까지 가지고 있는, 여성과 동등한 남성인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청혼을 거절 한 후 다아시가 보낸 편지를 받고서 제인의 결혼을 방해한 이유와 위컴의 자기 합리적인 이야기들의 모든 진상들을 알게 된다. 몇 번을 반복해서 그의 편지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협했던 판단을 지나간 일들에 비추어 생각하며 인정하고, 그에 대한 관점

을 바꾸게 된다. 즉 그녀는 상류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편견과 더불어 위컴의 거짓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다아시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상류층이라는 계급과 더불어 그를 보고 있었지, 다아시 자체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도 또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만심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위컴의 잘 생긴 외모와 첫인상을 통해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 다아시를 오해하게 된 편견은 그녀가 이성을 지닌 여성으로 모든 일을 당당히 대처해 나가는 존재이나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감성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컴은 작품 초반부에서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베넷자매들이 콜린즈와 메리튼까지 걸어가던 중,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처음 만나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외양에 이끌려 그를 ‘찬양’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브는 오스틴의 소설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을 연구한 결과 엘리자베스가 ‘사랑할 만한(amiable)’사람과 단지 ‘호감이 가는(agreeable)’사람, 이 두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에서부터 그릇된 편견을 그녀가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한다.²⁰⁾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호감이 가는’ 위컴을 처음부터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그의 외양만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녀는 그의 본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다아시를 생각하던 위컴을 생각하던 자기가 눈이 멀었고 편파적이었으며 편견에 가득 차고 어리석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Stuart M. Tave, *Some Words of Jane Auste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3), p. 58.

“내 행동이 그렇게 한심했다니!” 그녀는 외쳤다.

“변별력에 대해서만큼은 자부하고 있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똑똑하긴 하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때때로 언니가 너무 너그럽고 솔직하다고 비웃으면서 쓸데없이 나를 의심함으로써 허영심을 만족시켰던 내가! 이제야 깨닫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하지만 창피해 하는 게 당연하지!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해도 이보다 더 기막히게 눈이 멀 수는 없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허영심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빴고, 다른 한 사람은 특별한 호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난 두 사람에 관해서는 선입관과 무지를 따르고 이성을 쫓아낸 거야. 지금 이 순간까지 난 나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야.” (p. 294)

이로써 자신의 탁월한 지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엘리자베스는 편견에 눈이 멀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자기 집안의 불리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도 얻게 된다.

자기 환멸에서 비롯된 이 인식은 가드너 부부의 휴가 여행에 끼어 더비셔(Derbyshire)로 여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다시 소유의 뎀벌리(Pemberley)를 방문하면서 더욱 발전되며 여기에서 다아시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진다. 이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점에서 엘리자베스의 자아가 확고히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아성장의 확고한 계기가 되는 뎀벌리에 대해 오스틴은 서론부분에서도 억제하여 설명하지 않았던 배경묘사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 이유는 뎀벌리에 관한 묘사 부분이 읽기를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의 특별한 주제를 탐구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저택은 크고 위풍 있는 석조 건물로, 오르막에 보기 좋게 자리 잡고 있었고, 뒤로는 숲이 울창한 구릉이 받쳐주고 있었다. 또 저택 앞으로

는 원래 잇는 개울을 더 넓혀놓았지만,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독들은 형식적으로 잇는 것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팬스럽게 꾸며 놓지도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기뻐다. 자연의 묘미가 이토록 살아 잇는 곳,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서툰 취향 탓에 훼손당하지 않고 이토록 살아 잇는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일행은 모두 열렬히 찬탄하여 마지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팸벌리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일수도 잇다는 것을! (p. 340)

팸벌리는 인공을 가미한 흔적이 없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지니고 잇다. 아름답지만 형식적이지도 않고, 어색하게 꾸민 흔적도 없다. 엘리자베스에게 잇어서 팸벌리의 이미지는 다아시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여겨진다. 즉 그곳은 거짓 꾸밈을 싫어하고 어떠한 속임수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다아시와 닮아잇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아시의 초상화와 마주하게 되면서, 그의 성격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의 과정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관계의 급진적 변화를 제공해 준다.²¹⁾ 팸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되는 다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가정부 레이놀즈 부인의 등장으로 강화된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에 관한 호의적인 평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주로서도 주인 나리로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요즘의 막돼먹은 젊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분의 소작인이나 하인치고 그분을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분더러 거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잇는데, 전 한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다른 젊은이들처럼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지 딴 이유가 없어요.”
(p. 346)

21) Alistair M. Duckworth, *The Improvement of the Estat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4), p. 123.

그녀가 설명해주는 소작인들의 그에 대한 존경심은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그의 성품과 인격을 정확히 알게 해주었고, 그녀는 다아시가 부족한 자기를 사랑해 준 것에 감사해 한다. 다아시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던 도중 우연히 여행에서 일찍 돌아온 다아시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엘리자베스의 삼촌과 숙모에게 예의를 표하고 그들을 그녀와 함께 그의 영지로 초대함으로써, 사회가 그의 의식 속에 심어 놓은 계급의 장벽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스틴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획득한 이들의 결혼을 유보시키고 다아시에게 남아있는 계급간의 차별성에 대한 의식을 해결하고 엘리자베스의 사랑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리디아와 위컴의 도피행각으로서 이것은 리디아와 위컴이 각각 대변하는 한 가정과 사회의 악이 결합하여 야기된 문제이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게 갖기 시작한 사랑의 감정 때문에 리디아가 저지른 부도덕한 행실에 괴로워하며, 다아시 역시 여동생 조지아나의 과거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재현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리디아와 위컴의 도피행각을 통해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에게 품었던 기존의 의심스러웠던 생각이 전복된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리디아의 도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 다아시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바람을 알아차리게 된다.

다아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는 것 같지도 않았고, 깊은 생각에 빠져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찡그리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이를 보았고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의 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가족의

약점과 가장 커다란 치욕이 드러난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상할 것도 비난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그녀의 마음에 위안이 되지 못했고, 그녀의 비통한 심정을 덜어주지 못했다. 그 반대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안성맞춤의 계기다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이 소용이 없어진 지금만큼 거짓 없이, 자기가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낀 적도 없었다. (p. 382)

그녀의 감정에 대한 인식은 갑자기 일어난, 은폐조차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컴이 과거에 그에게 저지른 가증스러운 짓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의 가족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아시는 리디아와 위컴을 찾아가 그의 빚을 갚아주고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할 것을 중용함으로써 엘리자베스의 가족이 사회적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다. 다아시의 그러한 태도가 엘리자베스를 향한 사랑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아시는 전에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할 때 했던 말인 “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던들”(p. 309)이라고 했던 그녀의 말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면서 현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다.

“...여덟 살 때부터 스물여덟 살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 엘리자베스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어찌 다 말할 까요! 당신은 저에게, 처음에는 정말이지 가혹했지만 다시없이 유일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신으로 하여,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당신께 청혼하러 갔을 때 전 승낙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를 기쁘게 해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임했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자임하기에는 제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p. 506)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다아시는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에게 진심으로 칭혼하게 되는데, 켄트에서 그가 했던 칭혼과는 달리, 그녀를 사모하는 자신의 감정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정열적으로 토로한다. 두 사람의 결합은 상호간의 진실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근거로 성립된 것이며 진정으로 자아 인식을 통한 정신적인 성장을 거친 후에 맺어진 결합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종속이나 예속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하는 새로운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가 성품에서나 재능에서나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지력과 성품은 자신의 것과는 다르지만 자신의 온갖 바람을 충족시켰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을 결합이었다. 자신의 편하고 활기 있는 태도로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태도는 개선될 것이며, 그의 판단력, 지식, 세상에 대한 식견으로 자신은 매우 소중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었다. (p. 427)

이렇게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계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아시의 변화는 그의 근엄함과 오만이 엘리자베스의 천성적인 명랑함이나 지혜로움에 의해 보완된다는 개인적 변화를 넘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 공손함을 갖게 되고 진정한 신사다운 태도를 갖게 되는 사회적 변화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성과 남성의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V. 결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노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에서 여성 문제의식을 뚜렷이 표출하고 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하여 당대 사회의 잘못된 가치판단 기준, 관습과 제도상의 억압이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여러 결혼의 양상을 토대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부장제와 불평등 제도의 모순에 대항하여 여성들이 정신적인 각성과 성장을 통하여 분별력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작품의 중요 모티브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에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성과는 아주 다른 존재로 생각되었다. 여성들은 결혼 능력으로 자신을 평가받았으며,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적 영역을 지키는 “가정의 천사”로 이성이 아닌 감성이 발달하여 대화 상대나 동반자적 위치보다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교육받고 길들여진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억압과 비참함’은 여성 소설가로서의 오스틴에게 민감한 문제였으므로, 그녀는 남성에게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의지 있고 재기 발랄한 지성을 지닌 여주인공을 등장시켜 여성의 관점에서 경험했던 현실을 작품 속에서 충실하게 재현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특히 열악했던 당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남성의 세계에 속하여 받는 억압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관습에 제동을 걸었다. 오스틴은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은 대등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닌 존재이며 또한 남성도 여성도 결합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란 점을 주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오스틴이 살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와 어우

러져 잘못된 결혼관과 결혼 풍습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스틴은 이 작품을 통하여 순전히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타락한 풍속적 결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결혼이 유일한 경제 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봉건 가부장제 하에서 가난한 여성이 처하게 된 현실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다. 또한 그러한 결혼 문제 중에서도 가문의 영향력과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보다 개인의 애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에게 불리한 관념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가부장제의 결함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 한다. 그녀는 그러한 결함을 부도덕하거나 무책임한 가장을 통해 드러내는데,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성과 감성을 고루 갖추는 진정한 자아 계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기존의 보편적인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여주인공 엘리자베스를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당시의 사회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분별력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그릇된 본유 관념을 부정하는 여성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그녀는 남성중심의 경제구조와 여성에게 불합리한 사회적 관념 그리고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해서 여성이 결혼 시장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서로 연관지어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관습에 대한 그녀의 비판적 반응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나 단순히 풍자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또 다른 삶의 유연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가의 능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스틴은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과 사랑이 바탕이 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이상적인 결합을 통해 종래의 수동성에서 벗어난 능동적이

고 적극적인 여성상과 함께 여성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은 서로의 감정과 사랑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고, 서로의 내면적 성숙 단계를 이끄는 긍정적인 힘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단지 안정된 생활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진 열정으로 선택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점차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가족의 결점도 인식하는 가운데 자아의 교정을 이루게 되면서 철저한 자아 발견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결국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반성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신분 상승의 부를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콜린스나 다아시의 구혼을 물리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을 결혼 시장의 경매품이나 장식품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독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다아시 역시 원래는 자신의 귀족적 신분에 대한 오만함으로 인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인물이었으나 엘리자베스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결점이 있음을 깨닫고 자아 발견을 하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결혼에 장애가 되는 오만과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사회적 관습의 틀을 과감히 깰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자아 발견을 통해 종속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 낸 결혼의 모습은 작가가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에 작가 오스틴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고 서로 효과적인 조화 속에서 결합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결혼은 오스틴문학의 여성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녀의 약점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오스틴이 그러한 결말을 통해 말하고자한 진정한 의도가 간과되기 쉽다. 오스틴 시대에 여성 작가는 소설을 쓰는 데서 소재의 제한을 받았다. 여성은 진지한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정치, 종교, 법률 등의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되었고,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성적 자유의 요구와도 같은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여성작가로서의 입장과 그녀가 처했던 상황에서, 오스틴이 혐오하는 성향의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녀의 고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스틴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책으로 소설쓰기를 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쓰고 있는 풍자는 바로 오스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용한 자기 보존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스틴이 작품 후반부에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경제력을 통해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수용하는 듯한 결말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오스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대로 그녀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표현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스미스(Leroy W. Smith)가 주장한 것처럼 오스틴은 무엇보다도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초기 여권론자’ (pre-feminist) 또는 ‘제한적 반항’ (limited rebellion)이라는 호칭을 얻고 있다.²²⁾ 오스틴이 소설 속에서 여성의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지만, 그녀의 여성의식이 오늘날의 여권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초기’ (Pre-)라는 어구가 붙여진 것이고, 또한 ‘제한적’ (limited)이라 한 것은 그녀가 시대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스틴은 이전까지 문학 작품 속에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왔던 여성상에서 탈피하여,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여성의 시각으로 부각시키고 그러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서 자아 발견을 통해 자신

22) Leroy W. Smith, *Jane Austen and the Drama of Woman*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1983), p. 253.

의 삶을 개선시키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창조해 내고 있다. 결혼을 소재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남녀간 애정 심리 묘사를 통해 인간 심리의 오묘한 전개 과정과 복잡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으며 결혼을 둘러싼 가족 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반기,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여성교육의 불평등성 등과 같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을 작품 속에서 풍자적 기법을 통해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오스틴은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적인 실상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과정에서 구속적인 사회 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해 냄으로써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미래 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막중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ibliography

I.Text: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Ed. Donald J. Gray. New York: W. W. Norton, 1996.

II.References:

Austen, Jane. *Jane Austen's Letters*. 2nd ed. Ed. R. W. Chapman. Oxford: Oxford UP, 1952.

Beauvoire, Simone De. *The Second Sex*: Trans. and ed. H.M. Parshley. New York: Bantam Books, 1970.

Chapman, R. W. Ed. *Pride and Prejudice*. London: Oxford UP, 1957.

Christopher, Gillie. *A Preface to Jane Austen*. London: Longman, 1974.

Duckworth, Alistair M. *The Improvement of the Estat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4.

Gooneratne, Yasmine. *Jane Austen*. Cambridge: Cambridge UP, 1970.

Hellerstein, Erna Olafson. *Victorian Women*.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1981.

Halperine, John. *The Life of Jane Austen*.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3.

Irwin, Michael. *Women in Western Civilization*. Cambridge:

-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81.
- Leavis, Frank. R. *The Great Tra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48.
- Luria, Gina. *A Collection of Works in Fassimile*. New York: New York UP, 1974.
- Macdonagh, Oliver. *Jane Austen: Real and Imagined Worlds*. New Havens & London: Yale UP, 1991.
- Mores, Ellen. *Literary Women*. New York: Anchor, 1977.
- Mudrick, Marvin. *Irony as Discrimination: Pride and Prejudice*. London: Oxford UP, 1966.
- Roberts, Warren. *Jane Austen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1973.
- Rousseau, Jean Jacques. *Emile*. Trans. Barbara Foxley London: Dent and Sons, 1957.
- Paris, Bernard J. Ed. *Character and Conflict in Jane Austen's Novels*. Detroit: Wayne State UP, 1978.
- Poovey, Mary. *The Proper Lady and the Woman Writer*. Chicago: U of Chicago P, 1984.
- Roverts, Warren. *Jane Austen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Macmillan, 1979.
- Smith, Leroy W. *Jane Austen and the Drama of Woman*. London: Macmillan, 1983.
- Tave, Stuart M. *Some Words of Jane Austen*.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73.
- Van Ghent, Dorothy.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

Watt, Ian. Ed. *Jane Auste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Wright, Andrew H. *Jane Austen's Novel: A study in Structure*.
London: U of Oxford P, 1957.

김경진. 『제인오스틴- 생애와 작품 세계』.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Abstract>

The Self-consciousness as a Women in *Pride and Prejudice*

Oh, Hee Lim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 Soo

Jane Austen represents her woman-consciousness in *Pride and Prejudice*. She is conscious of the question of the women who lived in a system of patriarchy and expressed the questions through love and marriage in this novel.

The first step of this thesis is to bring the different views of womanhood embodied by Elizabeth, the self-confident heroine of this novel and other female characters preoccupied by traditional patriarchy in 18th,19th century.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and Austen's woman-consciousness through Darcy and Elizabeth's mental development.

In *Pride and Prejudice* traditional women are represented through Jane, Mrs. Bennet, Lydia, and Charlotte. Jane is described as a beautiful woman and an "angel in the house". She is kindhearted but she has a passive attitude. Mrs. Bennet and Lydia lacking in judgement and emotion. Mrs. Bennet often shows her weak-mindedness by not forming her duty as a mother. Lydia is so passionate that she runs away with Wickham without marrying him. Mrs. Bennet and Lydia show their irrational aspects by not realizing their nonsensical and dishonorable

act. Charlotte is described as the woman who chose marriage for the stability of livelihood. Her marriage reveals that she adapts to the society at that time.

In contrast Elizabeth develops her ego through reading many books and experiencing the society in which she lives. She has the kind of the intelligence and discernment that are not found in other women. She is cleverer and more discreet than Collins and Wickham who have got a college education.

In *Pride and Prejudice* Austen shows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The hero, Darcy's pride and the heroine, Elizabeth's prejudice continually give rise to complications. The two finally become conscious of themselves. This work describes the process of the resolution about this matter.

Elizabeth has not only vigor and wit but also intelligence and sensitivity. Darcy looks like a snobbish and arrogant gentleman, but he is also honest and sure of himself. Elizabeth has a biased opinion of her own intelligence and judgement ; Darcy also has a proud sense partly justified, but it must be a defect that in the course of the novel will have to be disclosed and rectified.

Elizabeth's criticism of Darcy causes him to some changes in consciousness. Elizabeth feels dishonor because of Darcy's objections to her family. They try to overcome their defects until they find the most suitable partner in the other. In the end, Elizabeth and Darcy are united in fruitful harmony with recognizing a new cognition of themselves. After all, Austen claims that mutual respect and affection make the best and safest basis for a happy marriage. It is perhaps no wonder that such a marriage proves capable of giving eternal delight. In *Pride and Prejudice* Austen declares that man and woman are equal at least in their reciprocal respectability of each others affection.